

고려대장경연구소 창립 10년, 새 프로젝트 가동

# 일본·북한과 손잡고 '대장경 불사'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가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벌인다. 연구소는 또 남북 학술용어 통일화를 위해 8월 '남북 공동 고려대장경 번역 비교 및 표준화 방향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2월 18일 발표했다.

연구소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初造大藏經) 전산화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그동안 사업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올해 문화관광부 예산 3억원이 확정돼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국내 초조대장경(2004년)과 일본 소장본(2005년)을 수집, 정리해 전산 DB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또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해제 작성 후에는 영인본도 출판할 계획이다.

11세기 77년에 걸

쳐 완성된 국내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은 인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유출돼 현재 국내 소장본은 3백여 권에 불과하고 일본에 2천 4백여 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 소장본도 분산 소장돼 있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초조대장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교문화유산으로서 초조대장경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학과 역사학, 서지학적 통계·분석·연구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 종립 소장은 "이로써 대장경의 새로운 판본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의를 설명했다."

올해 8월 평양 개최를 목표로 하는 '남북 공동 고려대장경 번역 비교 및 표준화 방향 학술대회'는 남북 학술용어를 표준화하는데 불교를 매개로 국제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구소는 2001년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소장 최태권)에서 번역 출판한 <선역본 팔만대장경>을 출간하고, 2002년 1차 <대장경 남북번역용례자료집>과 2차 <대장경 남북 번역 용례 및 통일안>을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학술대회는 그동안 남북한 학자들의 의견 교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대장경의 남북번역용례 비교 및 표준화 방안 모색 △고려대장경의 관습용례 관련 남북용례비교 △고려대장경의 역경번역에서 해결할 몇 가지 문제 △고려대장경의 고역과 신역 용어처리와 그 문제점 특성처리에서 해결할 몇 가지 문제 △한문으로 된 불경번역에서 허사(虛辭·흠로는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미나 조사)의 처리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소는 4월경 <고려대장경 2004> 최종판도 출시한다.

오유진 기자

##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 전산화 추진... 8월에 남북공동 학술대회

### 통일신라·고려·조선 추정유물 나와

#### 익산 미륵사지 석탑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에서 명문이 새겨진 납석제소호(鐵石製小壺·납석으로 만들어진 작은 항아리) 2편(片·사건)과 고려시대 와편(瓦片), 조선시대 상평통보(常平通寶) 동전이 발견돼, 이들과 미륵사 사찰활동, 석탑 개·보수 활동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자이거나 '俎(俎)' 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호편은 형태와 서체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의 사리소호(舍利小壺)나 골호(骨壺)나 진단구(鎭壇具·탑지나 건물지 밑에 묻어 붕괴를 방지하고 액을 예방하는 의식에 사용)로 추정된다.

이외에 와편은 미륵사지 발굴조사 당시 발견된 고려 충숙왕 4년(1317년) 명문 와편과 테두리 문양과 명문이 일치한다.

앞면에 '常平通寶(상평통보)'가 새겨진 동전은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정조 2년(1778년)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 국립문화재연구소 올해 무슨일 하나

석조·목조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정밀 실측조사가 본격화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월 19일 대전 세정사 중공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밝혔다.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은 △중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문화재 안전점검 및 환단 시스템 연구개발 △고건축 문화재 종합 연구·조사 △해외소재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 및 국제 교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연구 △무형문화재 원형기록보존 및 예능민속조사·연구 △풍납토성 학술조사·연구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연구 △한국 민속 문화 자료집성 등.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업은 고건축 문화재 종합 연구·조사에 포함된 석조 문화재 보존관리방안 연구, 기록보존 사업과 목조문화재 기법 조사, 나머지 굵적

굵직한 사업들 가운데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문화재의 정확한 원형기록 자료 구축이 문화재 보존행정의 터 다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석조문화재 기록보존은 금골산 5층 석탑(보물 제529호)을 비롯한 47실측조사부터 시작한다. 기록보존은 민일의 훼손 사태에 대비해 문화재의 현황을 남기고, 향후 보존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 조사다.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적절한 보존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석조문화재 보존관리방안과 함께 진행된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석탑의 3차원 원형기록 보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미륵사지 석탑의 3차원 스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유진 기자

### 우희종 교수의

## 불교와 생명과학 <33>



### 지식과 지혜

최근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가 뉴스에 회자되고 있다. 동일인의 난자에 체세포를 넣어 줄기세포를 만들었기에 앞으로의 적용범위가 무척 많은 연구이다. 특히 이러한 줄기세포를 특정 조직이나 장기로 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특정 질환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가끔 이야기되는 이종간의 장기이식 같이 번역학적으로 거의 실현이 불가능에 가까운 연구를 대체할 것으로 예견되어 왔던 연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많다는 것은 활용하기에 따라 많은 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 복

학자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식(知識) 창출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깊숙이진 과학자에게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을 막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지식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지닌 지혜(智慧)에 의한 것이다. 도구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좋다고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다를없다. 원자폭탄의 기초를 이룬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연구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적용된 것에 대하여 평생 자책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 연구의 의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만 생각했거나 어쩌면 스스로 그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 지식, 자연 이해·욕망 채우는 도구

### 도구의 의미·활용은 지혜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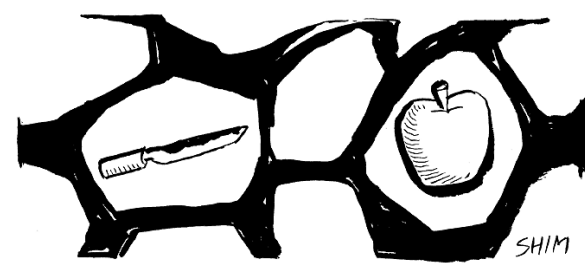
제나 다른 유전자 조작 기술과 함께 사용돼 특정 유전자를 발현한 인간을 만들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인은 영원히 차별받고 피지배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허울 속에서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줄기세포 연구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복제된 인간의 안정성은 별도로 하고) 점차 커져 오듯이 결코 꿈과 같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생에 대한 본능적 욕망은 결코 선악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생명체의 끝없는 탐욕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식은 자연을 특정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며,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대장장이가 요리에 쓸 식칼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살인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 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그 칼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가 만든 지식에 대한 의미와 활용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좋고 싫음,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은 항상 서로 상대적으로 같이 있음을 알아 사물이나 현상, 과학 지식에 대하여 무조건 한 면만 보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된 될 수 있도록 욕망을 제대로 보는 지혜로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SHIM

## 無 - 불교문학상 (제1회)

## 전국 찬불가 대회(제1회)

- 장르: 시(시조), 수필, 소설  
※ 시시조는 3편
- 분야: 어린이(유아,초) 학생(중·고·대), 일반
- 상금(각 분야별)  
● 대상: 50만원(어린이), 80만원(학생), 150만원(일반)  
● 우수상: 장르별, 분야별 상금(9팀)
- 마감: 2004년 5월 15일(토)
- 불교적 소재라야 함.

- 장르: 독창, 2중창, 합창
- 분야: 어린이(유아,초) 학생(중·고·대), 일반
- 상금(각 분야별)  
● 대상: 50만원(어린이), 80만원(학생), 150만원(일반)  
● 우수상: 장르별, 분야별 상금(9팀)
- 마감: 2004년 5월 15일(토)
- 장소: 영남불교대학 3층 대법당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또는 숫자: 8228)에서 참조하시기 바람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 행사모집(1인 1실 민주적 교육) · 신입생 모집 정규반(주.야 7천명 대구, 경산, 칠곡) 인터넷반, 통신반

매년 100% 포교사 고시 합격과 전국 합격을 1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불광사 신도전문 교육기관

## 경북불교대학 제15기 수강생모집

◆ 경북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인정(2002-11호) 2년제 신도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재가불자들의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해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를 이루며 바르고 참된 불자를 양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모집부문 및 교육과정 (2년제 : 6개월 × 4학기) ※ 경전반: 수시 입학 가능 ▶ 천수경(반야심경), 초발심지경론, 금강경

학 계	모 집 부 문	과 령
1학기	· 매주 목요일 (주)오전10시~12시(100명 선착순 모집) · 매주 목요일 (아)오전 7시~ 9시(100명 선착순 모집)	· 불교교리 · 불교역사 · 불교윤리 · 성지순례
2학기	· 매주 목요일 (주)오전10시~12시 · 매주 목요일 (아)오전 7시~ 9시	· 포교방법론 · 수행과 실천 · 수련의
3학기	· 매주 목요일 (주)오전10시~12시 · 매주 목요일 (아)오전 7시~ 9시	· 비교종교론 · 불교와 사회복지 · 경전의 이해 · 특강
4학기	· 매주 목요일 (주)오전10시~12시 · 매주 목요일 (아)오전 7시~ 9시	· 불교사상사 · 계율론 · 봉사활동

◆ 입학자격 - 불교를 바르게 배우고자하는 불자로서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없이 입학 가능함

◆ 구비서류 - 증명사진 2매, 입학원서 1통(본원에서 무료 제공) - 조계종 신도증 신청서(사전 2매, 회비 1만원)

◆ 원서교부 및 입학일시  
- 원서접수: 2월 1일 ~ 3월 20일  
- 입학일시: 2004년 3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주 야 합동 입학식

**교양취미교실**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지공예교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잠선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예교실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합장단
- 매주 수·금요일 오전 11시: 다도교실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수제침교실

◆ 특 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고시자격 취득

◆ 교 수 진

- 돈관스님(전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경북불교대학 학장)
- 일흥스님(능인중학교 교장)
- 무공스님(전 지혜의 생 진행자, 불은사 주지)
- 영석스님(전 교법사, 전문사 한주)
- 조현준(경북대학교 교수) · 장호경(경산대학교 교수)
- 이정희(경북대학교 교수) · 김약수(미래대학 교수)
- 공재성(대구 MBC 보도편성국장)
- 다 도: 신경숙 선생님
- 수지침: 이영희
- 한지공예: 김정희 선생님
- 서 예: 이영자(보리자)선생님
- 합장단: (지휘)이상대 선생님 (반주)안재정 선생님
- 풍물단: 이정희 선생님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동 444번지 전화: 중구수 053)792-1353 불교대학 053)792-1181 문화센터 053)792-5666  
기도전행상당 053)792-2888 FAX(팩스) 053)791-4951 http://www.gbcc.or.kr